

오영수 소설의 특질 연구

- 낚시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

곽 근*

- I. 서론
- II. 오영수와 낚시
- III. 인생교화와 현실비판
- IV. 자연친화와 생명존중
- V. 결론

【국문초록】

오영수는 어려서부터 말년까지 취미나 기호 이상으로 낚시를 생활화하였다. 그 경험을 남에게 들려주기 좋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13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본고는 이 소설들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소설들 중에는 물론 자신의 경험담을 가볍게 소개하거나, 수필과 구별하기 어려운 작품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통적 소설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작가 또한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설화와 함께 꿈을 자주 삽입하는 것도 그 노력중의 하나다. <수련> <장자늬> <실겉이꽃> <뚝섬할머니> <삼호강>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꿈은 서사적 흥미와 함께 작품의 의미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확대에 기능한다. 의식적으로 알파벳 이니셜이나 ‘그’노인촌로·신사할머니 등 삼인칭 명명을 사용하여, 신변소설이나 사소설과의 차별화도 꾀하려 한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본분이나 도리를 강조하는 교훈으로 되어 있거나, 현세태에 만연하고 있는 부도덕과 무질서와 비리를 고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위의식을 버리고 인격도야를 주문하는가 하면, 법도와 규율을 준수하라고 역설한다. 우주의 섭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르쳐 준다. 또한 예의범절이나 체면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꾸짖고, 약자나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몰인정을 질책한다. 권력에 아첨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병폐를 폭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연친화와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하여 이들이 서로 감정과 사고가 통한다고 보는데서 입증된다. 이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귀중하다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이제 인간은 낚시를 일종의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오영수는 정신 수양 혹은 심신수련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형상화한다. 이로써 오영수는 한국문단에서 낚시관련 소설을 창작한 특이한 작가가 된다. 이것은 안정효의 낚시 관련 소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주제어 : 오영수, 안정효, 낚시, 자연친화, 생명존중, 현실고발, 허위의식, 인격도야, 예의범절, 권력, 강박관념, 악몽, 원리원칙

I. 서론

오영수는 자신의 소설을 ①서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칸 것, ②인생 문제를 다룬 것, ③국토분단이 몰아온 문제, ④현대 기계 문명의 피해에 관심을 가진 것) 등으로 분류하여, 그 경향이 결코 획일적이지 않음을 강조한 적이 있다. 작가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의 소설을 정독해 보면 이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 이중 ①②와 연관된 작품 가운데 낚시 관련 소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낚시는 적어도 10만 년 전부터 인간이 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는 삶과 죽음의 서사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현재에는 오락적 성격이 더 농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낚시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 수다하다. 영어권만 한정하더라도 지난 300년 동안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이 30여 편 발표된다. 훌륭한 작가들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헤밍웨이리 울프·닉 리온스·아리작 윌튼 등이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낚시와 관련된 작품이 많지 않은 듯하다. 간혹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작가라 하더라도 한 두 편의 창작으로 그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영수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신경림은 다음처럼 언급하고 있다.

오영수의 작품에는 <수련> <수변춘추> <낚시광> 등을 비롯해서 낚시 이야기가 매우 진지하게 나오는 것이 많다. 다른 아닌 작가 자신의 낚시 이야기가 다른 인물, 다른 인생 등으로 약간씩 분장되어 소설로

1) 오영수씨와의 대화, 『문학사상』, 통권 4호, p.305.

2) 폴 킨네트, 황정하 옮김,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바다출판사, 2006, pp.83-94.

꾸며진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작가들 중에서 가장 낚시의 경험이 많고, 또 낚시를 이야기한 작품을 가장 많이 내놓은 작가가 이 오영수일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남을 트집잡기 좋아하던 한 평론가가 이 낚시 이야기를 문제삼아 오영수의 소설을 신변잡기적인 것, 사소설적인 것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다.³⁾

오영수가 한국작가 중 가장 낚시 경험이 많고, 이와 관련된 소설도 제일 많이 발표했으며, 그 소설들은 진지한 낚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언급은 사실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신변잡기적인 것’ ‘사소설적인 것’이라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오영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을 발표한 김영화와 김병택의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오영수 소설에 시골과 도시 외에 낚시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10여편 된다. <어느 나무의 풍경>(56)에서부터 <삼호강>(76)까지 낚시터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은 이 작가가 낚시를 즐겨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낚시와 관계되는 소설은 산문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신변잡기, 또는 수필에 가까워 소설로서는 두드러진 것이 못된다.⁴⁾

여기에 덧붙여 이 두 논자들은 “작품으로서의 긴장감, 충격도가 없어 작가정신이 안일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⁵⁾ 주장한다. 물론 이런 평가를 받아 마땅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

3) 신경림, 「반현대의 작가 오영수」, 『한국문학전집』 19권, 삼성당, 1988, p. 506.

4) 김영화·김병택, 「오영수의 소설연구」, 『제주대 논문집』, 제24집 인문편, 1987, p.41.

5) 위책, p.29.

다. 그러나 이 부류의 모든 작품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의 논리는 기본 자료부터 불성실하다. <어느 나무 풍경>은 낚시와 관련된 소설로 볼 수 없다. 이 범주에 속하는 작품은 10편이 아닌 13편⁶⁾이다. 위의 논자들은 이들 중 몇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한 인상마저 준다.

이 작품들이 왜 소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지, 과연 긴장감과 충격도가 없는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신변잡기나 수필에 가까우면 소설로써 실패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최서해·이상·현진건 등 여러 작가의 신변잡기나 수필 형식의 소설 중에 성공작문제작이 얼마나 많은가. 오영수도 이 경우에 속하고 있음을 다음의 논의가 뒷받침해 준다.

그(오영수: 인용자주)가 일상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설이나, 수필과 유사하게 씌어진 소설에서조차도 우리 기억 속의 소중한 것들을 되살려 준다. 이러한 그의 작업을 구조시학이나 신비평적 태도로만 살핀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은 복고적이라 할지라도 정신사적으로 그의 작품을 대하는 편이 오영수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⁷⁾

-
- 6) ①두 노우, 『문예』, 1953. 9 ②수련, 『현대문학』, 1961. 10 ③실소, 『예술원보』, 1961. 12 ④낚시광, 『사상계』, 1962. 11 수변의 개제 ⑤장자늘 제5창작집 『수련』, 1965. 3 ⑥낚시터 인심, 제5창작집 『수련』, 1965. 3 ⑦수변준추, 『현대문학』, 1966. 1 ⑧실걸이꽃, 『현대문학』, 1968. 3 ⑨뚝섬 할머니, 『월간문학』, 1969. 2 ⑩메기와 권위, 『오영수대표작선집』 7, 1974. 1 ⑪삼호강, 『현대문학』, 1974. 5 ⑫어느 여름밤의 대화, 『현대문학』, 1975. 1 ⑬속두메낙수, 『현대문학』, 1978. 3
최옥선, 「오영수의 낚시 소재 소설 고찰」 『국제언어문학』, 2007. 12, p.68.
- 7) 이재인, 「21세기를 향한 오영수 소설 연구의 가능성」, 『경기대 인문논총』, 제 8호, 2000. 12, p.4.

그렇다면 김영화나 김병택은 정신사적으로 대해야 할 작품에 구조시학이나 신비평적 잣대로 접근한 셈이다. 오영수 소설에 관심이 많은 천이두도 낚시 관련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 인상이 없지 않다.

<수련> <어느 여름밤의 대화> 등과 같이 도시의 지식인이 등장하는 소설의 경우 작가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역시 도시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거나 야박한 도시 인심에 물들지 않은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생활 풍경 쪽인 것이다.⁸⁾

<수련> <어느 여름밤의 대화> 등은 낚시에 무게 중심을 둔 작품이다. 천이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생활’만을 읽어 낸다. <수변춘추> <장자늪> 등의 작중인물에게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은 외면하고, ‘자연과 벗하며 살았던 동양선비의 모습’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영수의 낚시 관련 소설은 신변잡기적이고 사소설적이어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곳에는 동양선비의 모습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기 위해 작성됨을 밝혀둔다.

II. 오영수와 낚시

오영수는 일찌감치 그의 소설에 낚시 이야기를 삽입한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밝혔듯이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그는 수량(水量)이 풍부한 냇가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낚시를 즐긴다.

8) 천이두, 「오영수 작품론 -따뜻한 관조의 미학-」, 『동서한국문학전집』 14권, 동서문화사, 1987, p.513.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낚시 입문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일본 생활은 1932년 처음 시작되어, 해방 후 경남 여고 교사로 재직하기 전까지 귀국과 도일을 반복하며 이어진다. 그 사이 낚시광인 일본인 하숙집 주인과 어울려 다니며 낚시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말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사실은 세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⁹⁾ 고향에 사는 동안에는 타지의 지인들에게 자주 낚시와 관련된 내용을 편지로 보낸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때는 주말의 낚시 경험담을 동료들에게 전하기를 좋아한다.

낚시 관련 소설들을 통해 오영수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낚시가 유용하게 작용함을 강조한다. <수련>에서는 인간의 심신수련에 기능하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모대학 조교수인 남주인공 B는 주말마다 낚시를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여주인공 정옥은 낚시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장차 삶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그녀의 삶은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

-
- 9) ① 이런 막대기 낚시도 <입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의 조력(釣歷)과 연조(年條)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정작 낚시 입문은 일본에서 낚시광인 하숙 주인과 열려 낚시를 다닌 데서부터 본격적인 낚시 입문이 아니었던가 한다.(오영수, 「낚시입문(유고)」, 『현대문학』, 1990. 5, p.152.)
- ② 간간 띄우는 엽서에 선생(오영수: 인용자주)은 낚시터가 좋다, 밤이면 접동새가 운다, 대숲 사이를 부는 바람소리가 좋다, 하며 한가하고 조용한 생활을 써보내곤 했다.(이범선, 「한 점 흰 구름처럼」, 『현대문학』, 1979. 8, p.270.)
- ③ 오선생(오영수: 인용자주)은 낚시를 즐겨 다녔다. 직장에서 월요일이면, 나는 또 전차표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 전차표란 낚시에서 시원찮은 고기를 두고 그렇게 말했었다. 자매회사인 대한교과서에는 최선생이라는 오선생 동창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하루 전에 있었던 낚시로 화제의 꽃을 피웠었다.(박재삼, 「자기세계에 탐닉했던 분」, 『현대문학』, 1979. 8, p.273.)
- ④ 낚시를 좋아하고 붓글씨를 쓰고 난초를 가꾸고 그리고 문학에 더 정력을 쏟던 오영수씨를 좋아한다.(김윤성, 「오영수씨의 일면」, 『현대문학』, 1979. 8, p.280.)

패전과 함께 일본에서의 귀국, 6.25의 발발과 아버지의 행방불명, 어머니와 함께한 일본식 국수 장사, 세무서 이씨의 약혼 강요, 요리사 김씨의 겁탈 시도 등.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해결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시련과 위기 끝에 그녀가 찾은 일이 바로 낚시다.

<뚝섬 할머니>에서는 부부의 정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울울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낚시를 시작한 영감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던 아내에게 애정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메기와 권위>에서는 낚시가 인격을 도야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삼호강>과 <수변춘추>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인생과 낚시는 상대방이 있는 투쟁인데, 인생의 투쟁 대상이 죽음과 운명이라면, 낚시의 그것은 물고기라는 것이다. 인생이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낚시는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영수는 낚시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며, 애정의 끈이 되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인생의 의미를 확인시켜 준다고 본다. 그런 만큼 그에게 낚시는 취미나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그의 소설에서는 재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낚시에 관한 것만 따로 해서 소설집 한 권을 묶을 계획이 있으나, 건강사정상 부득이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¹⁰⁾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이 방면의 소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용환은 낚시를 앞둔 그의 모습을 다음처럼 적고 있다.

10) 오영수, 「후기」, 『수련』, 정음사, 1974, p.396.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오영수: 인용자주)의 눈빛을 한 번 살폈는데,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선생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도무지 안정감을 잃은 번뜩이는 그 눈빛에서 나는 광기를 보았던 것이다. 하기가 선생의 낚시 취미라면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¹¹⁾

한용환은 오영수의 낚시에 임하는 자세를 ‘광기’로 표현한다. 그가 낚시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탐닉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오영수는 “낚시를 도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 이상 낚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군.”¹²⁾ 할 정도로 낚시를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을 거부한다. 이러한 기질이 낚시 관련 소설의 창작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의 이방면의 소설을 가볍게 넘기거나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소설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안정효의 낚시 관련 소설들과 몇몇 사항을 대비해 보고자 한다.¹³⁾

주지하다시피 소설가 안정효는 소문난 낚시광이다. 그는 40세가 넘어서는 주말마다 낚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부터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한다.¹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늘>(문학정신, 1991) <미늘의 끝>(낚시춘추, 2000) <물에 빠진 대화>(2001) 등 3편의 중편소설을 발표한다. 이 작품들 외에 자기 나름대로 정립한 낚시 철학을 토대로 에세이집 『인생 4계』(황금시간, 2007)를 출간하기도 한다.¹⁵⁾

11) 한용환, 「아직도 남은 체온 -오영수를 추억함-」, 『작가연구』, 10호, 2000년 가을호, p.124.

12) 위책, p.124.

13) 안정효 소설의 본격적 분석은 본고의 의도가 아닌 만큼 다음 기회로 미룬다.

14) “잔챙이 낚아도 행복은 월척” 소설가 안정효씨 ‘인생 낚시론’ 책내 『중앙일보』, 2007. 3.20

15) 안정효, 『미늘의 끝』, 들녘, 2001, p.436.

오영수와 안정효의 낚시 관련 소설을 대비하는 것은, 동일한 제재가 작가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리 형상화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시대와 풍속의 변모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낚시 관련 소설이니 만큼 안정효의 소설 역시 오영수의 특질과 유사한 부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작가의 유사성은 제외하고 그 상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가의식이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탐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오영수의 작중인물들은 서울에 사는 교수와 교사가 대부분이며, 주로 버스(대중교통)를 이용하여 낚시터로 간다. 그들은 바다낚시 보다는 민물낚시를 한다. 장자늪을 비롯하여 서울 외곽의 수로나 저수지가 낚시터가 된다. 낚시하는 기간도 토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하루 민박하고 일요일에 돌아오는 1박2일이 대부분이다. 몇 주 일은 고사하고 며칠도 어렵다.

이에 비해 안정효의 인물들은 서울의 백화점 사장이나 자동차 정비공장의 전무 등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콩코드나 겔로퍼쏘나타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낚시를 한다. 그 범위도 추자도의 푸랭이섬(靑島)에서 ‘거제도 장승포에서 쾌속정으로 한 시간 거리인 안경섬’(<미늘의 끝> p. 58)까지 뻗혀 있다. 그 기간도 보통이 10일이나 14일이고 길 때는 한 두 달이 넘는다.

오영수의 인물들은 3월부터 11월까지만 낚시를 하고 겨울철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혼자서 낚시를 하되 자신이 즐기 기 위함이다. 이에 비해 안정효의 인물들은 계절이 따로 없다. 어느 때고 마음이 내키면 낚시를 위해 떠난다. 겨울철에 오히려 그 빈도가 많은 편이다. 보통 두 명이 자주 가지만 여러 명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낚시를 즐기기보다는 번잡한 인생살이를 잠시 떠나보려는 의도가 강하다. 낚시터가 일종의 피난처인

쌈이다.

전자가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가 낚시터에서 먹는다면, 후자는 음식점에서 배달해 먹거나, 아니면 호화관 먹거리를 준비해 바닷가에서 손수 해먹는다.

오영수 소설 속 인물들은 심적 여유가 있고 한가하다. 물고기를 인간과 대등하게 혹은 인격체처럼 대한다. 잡은 물고기는 대개 집에서 기르거나 남에게 나누어 준다. 자연과 생태계가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현실의 반영이다. 여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인정적인 오영수의 성격이 투영된 모습이다.

안정효 소설속의 인물들은 행동이 무모할 정도로 모험에 가깝고, 그래서 낚시 중 자주 사고가 발생한다. 죽음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물고기에 대해서도 정복자의 위치에 있다. 물고기를 잡으면 ‘맛이 조금이라도 가기 전에 먹어치워 배에 넣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어 잡은 것을 거의 다 회를 쳐 먹어버린’다. 자연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는 90년대 현실의 반영이다. 여기에 자연에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안정효의 성격이 반영된 모습이다.

이처럼 오영수는 60, 70년대의 가난했던 세대와 풍속을 반영한다. 인물들은 낚시를 심신수련의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안정효는 이전에 비해 풍요로운 90년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인물들은 낚시를 도락의 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오영수는 낚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작품화했다면, 안정효는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거나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낚시를 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Ⅲ. 인생교화와 현실비판

오영수의 낚시 관련 소설에서 중요한 특질은 우선 인생교화와 현실고발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수련>의 주인공 B는 낚시를 하면서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성급하거나 서두르지도 않는다.

근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B의 낚시에도 모선이 온다. 수면에 한 치 정도로 세운 찌가 반쯤 내린다. B는 가볍게 손잡이를 쥐면서 확실한 찬스를 노린다. 특히 첫 번에 오는 고기는 미끼를 떼일망정 서툴게 걸지는 말아야 한다. 서툴게 걸어서 놓치면 판 고기까지 놀래 달아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렸던 찌가 두 번 깜박거리고 얇전게 솟구친다. 한 치, 한 치 반— 가볍게 췌다. 맞췌다. 대를 통해 오는 감량을 보아 그리 크지는 않다. 조심히 다루어 올린다. 네 치다.¹⁶⁾

인간이 만사를 행함에는 그 시의가 적절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기다림도 필요하다. 낚시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강조한다. B와는 대조적으로 행위에 신중하지 못한 인물로 사나이와 천렵군이 등장한다. 그들은 경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쯤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예의 범절이나 체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의 몰염치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작가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인간을 훈계한다. 이러한 내용을 에피소드에서 전해준다면, 핵심내용에서는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면에서 교훈을 준다.

B와 정옥은 한 여름의 낚시터에서 만나 가을이 한창인 시월에 헤어진다. 프라이의 견해에 따르면 여름은 회극적 움직임을 지향

16) 오영수, 「수련」, 『수련』, 정음사, 1974, p.193.

하는 로맨스의 상징이고, 가을은 비극적 움직임을 지향하는 리얼리즘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낭만에서 현실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여름 동안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했었다면, 다시 말해 일상성에서 잠시 떠나 로맨스(환상) 속에서 지냈다면, 가을에 이들은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B가 다음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B 스스로 어떤 선비의 수련몽(睡蓮夢) 이야기를 정옥이란 가상의 여인에게 투사(投射)시킨 꿈이 아닐까?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줄곧 꿈의 연속이 아닐까? 그러나 B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꿈일 수가 없다. 꿈이어서는 안된다.¹⁷⁾

B가 아무리 부정해도, 실제로는 꿈이 아니라고 해도, 꿈같은 세월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덧없는 일장의 춘몽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B는 떠나간 정옥을 미칠 지경으로 찾아 헤매지만 만나지 못한다. 여기서 작가는 회자정리(會者定離)와 함께,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우주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응해야 할 것을 역설한다. 이러한 교훈을 온전히 낚시를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두 노우>에서는 낚시 친구인 화동영감과 최노인의 충들과 화해를 통해, 인간에게는 누구나 특기를 타고 난다는 것, 그 특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인간은 공평하게 태어났다는 것,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것, 늙어갈수록 말벗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성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라는 교훈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중론은 위에서 살펴본 <수련>에서는 물론

17) 오영수, 위책, p.236.

<실겉이 꽃> <수변춘추>에도 이어진다.

<실겉이 꽃>에는 낚시와 관련된 내용이 짧은 삽화로 소개된다. 즉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잘난 체 하는 태도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신중하지 못한 행위는 그 결과가 보잘 것 없다는 것 등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수변춘추>에서는 낚시하는 요령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은 매사에 신중해야 할 것임을 역설한다. 낚시를 하면서 ‘성난 머슴도 리께질 하듯 채면 고기 주둥이가 찢어지는 건 고사하고’ 잡은 고기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그것을 말해준다. <두 노우>에서 최노인이 성급해서 고기를 놓쳤다면, 여기서도 신사가 신중하지 못해 잡은 물고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실소>에서는 인간의 허위의식을 고발하고, 겸손의 미덕을 역설한다. 그것은 남의 공적을 자기 것인 양 내세우는 낚시꾼의 가식 행위와, 그런 행위를 방관하면서 우롱하는 낚시꾼을 모두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속 두메 낙수>의 주인공인 B는 숙련된 낚시꾼이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주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이런 내용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니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거나 뽐내지 말 것파,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비할 것 등을 주문한다.

<어느 여름밤의 대화>는 권력의 하수인과 권력을 역으로 이용하는 약삭빠른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리를 고발한다. 주인공 ‘그’는 권력이 없지만, 권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귀동냥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그 권력을 역이용하여 낚시를 하지 못하게 막는 부자(父子)를 물리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천이두는 다음처럼 견해를 밝힌다.

특히 낚시를 못하게 말리는 마을 사람에 대한 도시 사람의 분위기

에서 그 점을 짙게 느낄 수 있다. 즉, 옥신각신 말씨름은 주고받을망정 그의 내면에는 이미 그 마을 사람에 대한 ‘선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속의 따뜻한 선의와 제법 험악한, 밖으로 나타나는 입씨름 사이에는 기묘한 언밸런스가 빚어진다. 이 장면의 해학적 분위기는 주로 여기서 빚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선의의 시선에서 연유되는 따뜻한 성질의 것이다.¹⁸⁾

이러한 논리는 오영수가 선의를 추구하는 작가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다. 선의를 추구하는 작가이므로 험악한 분위기에서조차 여유자적하고 평화스러운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천이두는 이 장면에 상당히 호감을 느낀 듯 다시 비슷한 논조로 극찬한다.¹⁹⁾ 이 장면을 김소운은 ‘단수(段數) 높은 상대와는 행여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⁰⁾ 천이두와 김소운은 이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그’와 친구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말야, 한가지 뒷맛이 씹스레한 것은 관권이란 괴물이야. 이 괴물이야말로 무소부재, 만사에 통하는 풍토구조가 말야.”²¹⁾

작가는 이 사회에 관권이란 괴물이 무소부재하고 만사형통한다고 본다. 때문에 아이부터 육십 노인에 이르기까지, 농민이나 지식인을 막론하고, 권력에 아부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병폐가 만연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뉘시터 인심>에서는 주인공 R이 뉘시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

18) 천이두, 「오영수 작품론 -따뜻한 관조의 미학-」, 『동서한국문학전집』 14권, 동서문화사, 1987, p.512.

19) 천이두, 「선의 해학의 문학 -오영수론-」, 『작가연구』, 제10호, 새미, 2000, p.19.

20) 김소운, 「오영수란 소설쟁이」, 『황혼』, 창작과 비평사, 1977, p.298.

21) 오영수, 「어느 여름밤의 대화」, 『황혼』, 창작과 비평사, 1977, p.259.

기로 세상 인심의 야박함을 비판한다. R은 친구들의 권유에 상당한 비용으로 도구를 일체 준비해서 낚시의 길로 들어선다. 막상 그가 낚시에 입문하자 지금까지 입문을 권유하던 친구들은 R을 잘 인도하기는커녕 알보고 외면한다. 견디다 못한 R은 많은 손해를 감수한 채 낚시에서 손을 뗀다.

R과 그 친구들의 관계는 약자 대 강자 혹은 소수 대 다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약자나 소수는 강자나 다수에 비해 보호와 격려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면당한다. 작가는 여기서 약자나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한다. 오영수는 평소 불신과 상실의 세대를 살아간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그 심경을 작품화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반면 기존체제와 질서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붕괴와 상실밖에는 아무런 새로운 정립도 지향도 없이 극도의 개인주의, 무질서와 부패, 위선과 범죄만이 창궐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²²⁾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영수는 자신의 지론을 낚시와 관련한 소설에서 형상화한다. 이때 자신의 낚시 체험을 그대로 소개하지 않는다. 인생교화의 내용을 담거나 현대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구성한다.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하며 재능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예의를 지키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것도 주문한다. 관권의 병폐가 만연하는 사회를 고발하는가 하면, 인간의 허위의식을 꼬집고, 약자나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세태를 고발하기도 한다.

이것은 곧 개인 사이에서 진정한 사회적 관계나 윤리의식·도덕

22) 오영수, 「쪽정이 인생 유고」, 『현대문학』, 1990. 5, p.142.

적 가치 등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영민도 이를 간파한 듯 “오영수는 혼란에 빠져든 윤리의식과 사회도덕적 가치 개념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인간형의 탐구를 통한 서사적 자아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²³⁾ 주장하고 있다.

IV. 자연친화와 생명존중

오영수 소설에 대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자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논자들은 다소 견해차를 보이지만, 소설의 근간이 자연에 있음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²⁴⁾ ‘인간과 자연의 융화’ ‘자연에의 귀의’ ‘농경문화 혹은 전원사회에 대한 애정’ ‘자연과 생명을 추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세계’ ‘자연을 향한 동경과 회귀의 몸짓’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믿음’ 등이 그 대체의 요지다. 그만큼 자연을 제외하고는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영수가 자연을 형상화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자연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23) 권영민, 「오영수 소설의 새로운 계보학을 위해」, 『자유문학』, 2006 가을호, p.226.

24)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 ① 문홍술, 「친화적 자연에서 가혹적 원시적 자연에 이르는 과정 -오영수론-」, 『작가연구』, 제10호, 새미, 2000. 12, pp.51-72.
- ② 유임하, 「근대성 비판과 자연을 향한 동경 -오영수 소설의 현실성-」, 위책, pp.73-91.
- ③ 이동하, 「단편소설 미학의 전범」, 『자유문학』, 통권 61호, 2006 가을호, pp.241-249.
- ④ 이정숙, 「오영수 소설의 보편성과 개별성」, 『2008 오영수문학제 발표지』, pp.42-54.

그의 낚시관련 소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을 듯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영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오영수의 자연친화와 생명존중 의식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오영수는 선천적으로 자연친화 내지는 자연동화적인 기질이었던 듯하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소설에서 동물을 인간처럼 묘사하거나 의인화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소>에서는 메기가 게으름뱅이에 건방지고 능글맞은 인간으로 묘사된다. <속 두메낙수>에서는 악머구리가 우는 것을 창가를 한다느니, 곡(哭)을 한다느니, 책읽는 소리라느니, 처자식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느니, 운동회를 하며 응원을 한다는 등 인간의 행위로 간주한다. <수련>에서는 방아깨비를 선량한 사람으로, <삼호강>에서는 잉어를 백전노장의 영리한 장군으로 그리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시는 이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넘나들고 싶어하는 작가의 자연친화 사상에 근거한다. 이것은 고대서부터 면면히 흘러오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다.²⁵⁾ 이러한 사고 속에 바로 현대가 상실해 버린 낮익은 고향이 있다. 그것은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거부며 문명 이전의 상태로 놓여 있는 자연에의 집착이며 지향이라고 하겠다.²⁶⁾

오영수는 “내게 만일 신이 있고 종교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연이요 고향이었다.”, “종교와 과학도 인간의 불행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자연에의 복귀와 위대한 예술의 창조밖에 갈 길이 없다.”고 말한다.²⁷⁾ 자신의 신이나 종교가 곧 자연이라는 주장에서, 자연에 대한 그의 신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25) 광근, 「오영수 소설 속의 동물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의 어제와 오늘』, 국학자료원, 1998, pp.107-126.

26) 남송우, 「오영수의 문학세계」, 『울산문학』, 19호, 1992, pp.52-63.

27) 오영수, 「낙향산고」, 『현대문학』, 1990. 5, pp.140-144.

이러한 자연에 대한 그의 신념을 외면한 채, 혹자는 낚시 행위를 생태 파괴로 간주하여 낚시를 즐기고 낚시 관련 소설을 창작하는 오영수를 환경과괴범으로 간주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전업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도 아니다. 이론이나 작품을 통해 물고기의 포획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의 낚시 행위는 아름다운 꽃 몇 송이를 꺾어다 가까이 놓고 기뻐하며 즐기려는 호사가의 심정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처마 밑에 왜식 사기화로가 놓였는데 그 속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 담겼고 손가락같은 붕어새끼가 열 수줍 나란히 서서 입을 빠끔거리고 있었다. 나는 낚싯대를 메고 마을 앞 냇가로 나가던 선생(오영수: 인용 자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달려나온 붕어새끼들이 무슨 친구나 되는 듯 그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²⁸⁾

오영수는 낚시로 잡은 붕어새끼들을 어항 대신 사기화로에 넣어 친구삼아 기른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작중인물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성향이다. 때문에 작중인물들에게 물고기의 포획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들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소>의 주인공 B는 낚시란 원래가 낚는 재미지, 잡힌 물고기에는 별 미련이 없다고 말한다. B는 잡은 물고기를 대개는 이웃에 나누어 준다. <수변춘추>의 주인공 ‘나’도 낚시로 잡은 붕어 세 마리를 아이에게 주고, 나중에는 몇 마리 더 줄 걸 그랬다고 아쉬워한다. 이들은 비록 물고기는 잡았을지언정 그 생명에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찌면 이들의 낚시 행위는 자연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과의 융화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모른다. 이

28) 이범선, 「한 점 흰 구름처럼」, 『현대문학』, 1979. 8, p.270.

들은 그대로 오영수의 모습이다.

산꼭대기 작은 못에서 낚시대를 드리운 채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오영수의 자태: 인용자주)을 지켜보노라면 마치 은자의 낚인 듯 자연 속에서 자기 용화를 맛보고 있는 듯하였다.²⁹⁾

<수련>의 B가 서울을 벗어나 교문리에서 거의 매주 일박하면서 낚시하는 것은, 잠시나마 도시 문명에서 떠나 자연과 가까이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 모습이다. B와 정옥이 나누는 많은 대화에서도 자연에 대한 예찬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정옥은 지금까지 가슴에만 간직하고 있던 기구했던 삶의 역정을 낚시터에서 만난 B에게 토로한다. 무의식중 속내를 털어 놓게 된 것은, 순전히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시골 밤의 정취가 그 원인이다. 시골밤의 운치는 정옥의 괴로웠던 삶의 내력담조차 즐겁고 정감 있는 이야기로 승화시킨다. 작가는 자연의 정취가 인간의 심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재미, 아니 재미있다면 실례지만 이렇게 반딧불을 바라보면서 정옥씨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즐겁군요!”

“고맙습니다. 건데 어째서 생소하다시피 한 선생님에게 아직 누구에게도 못한 제 신상 얘기를 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³⁰⁾

<장자늘>과 <삼호강>도 물론 인물의 자연친화적 분위기지만, 특히 생명존중을 강조하여 눈길을 끈다. <장자늘>은 용왕에 관한 꿈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인간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은 물고기가 죽는 순간 겪게 되는 공포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29) 정형남, 「향토에 묻은 오영수의 문학과 생애」, 『울산문학』, 19호, 1992, pp.72-87.

30) 오영수, 「수련」, 『수련』, 정음사, 1974, p.26.

용왕은 판단한다. 그런 연유로 용왕은 인간들에게 역지사지의 교훈을 주기 위해 낚시꾼 두만을 물고기로 변신시킨다.

꿈속에서 물고기로 변한 두만이 낚시꾼에게 잡혀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증거다. 프로이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꿈은 강박관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만은 이 꿈을 낚시꾼 뒤 낚시를 포기한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두만의 친구인 ‘노인’ 또한 ‘이 얘기를 듣고부터는 낚시를 할 적마다 뭔가 좀 껴름칙’해 한다.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깊고 넓다. 때문에 이런 꿈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어떤 계시(啓示)를 암시한다는 믿음을 준다. 그 꿈이 신비감과 함께 신빙성을 더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영수의 낚시 관련 소설에는 이와 유사한 꿈이 자주 보이는데, 대체로 등장인물들이 낚시에 골몰할 때 꾸게 된다. 이 꿈은 거의 가위 놀리는 악몽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록 포획은 할망정 그들이 물고기를 결코 하찮은 미물로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인식한 결과다. 작가는 여기서 생명체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 엄청난 공포와 고통에 괴로워함을 상기시킨다. 그와 함께 낚시꾼에게 물고기 남획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삼호강>의 주인공 ‘그’는 대수술의 후유증과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출입도 제대로 못할 처지에 있다. 여기에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어 귀향을 희망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일 년 가까이 미적거린다. 그러던 중 결정적 계기를 맞는다.

그러는 동안 수개월 전에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우량아라고 놀려대던 막역한 친구가 하루만에 뇌출혈로 타계해 버렸다. 여기에서 어떤 충격을 받고 마음 속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³¹⁾

31) 오영수, 「삼호강」, 『황혼』, 창작과 비평사, 1976, p.202.

건강한 친구에게 갑자기 닥친 죽음은 병약한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친구의 죽음으로 자신도 한순간 죽음을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함을 깨닫는다. 그 결과 귀향을 결심한다. 죽음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귀향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향하여 목숨만 부지(扶持)하고 있으면 과연 그것도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낚시다. ‘그’는 고향의 K라는 곳에 주거를 마련하고 곧바로 그곳 가까이 있는 삼호강에서 낚시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거기서 강적인 아주 오래 묵은 잉어를 만나게 된다. 그 잉어는 ‘홀륭하고 당당한’ 모습에 ‘대인의 품모’ ‘왕자다운 위’를 갖춘 ‘이 강의 폐자’다. ‘그’는 그 잉어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기껏 한 마리의 물고기를 상대로 이토록의 흥분과 긴장과 집념이야 말로 하잘것없는 한사라고 빈축을 살는지도 모르나, 인간이 태초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죽음과 투쟁이 아닌가. 산다는 자체부터가 투쟁이 아닌가. 인간은 역시 상대성의 존재로서 상대가 없는 투쟁이 있을 수 없고, 투쟁의 상대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³²⁾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목숨(생명)이 고귀함을 새삼 확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는 그 일을 잉어와 겨루는 것으로 확인하려 한다. 김윤식의 이론에 기댄다면 ‘그’는 잉어를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위신투쟁(승인욕망)에 맞선 상대방(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김윤식의 부연을 들어보자.

32) 오영수, 위책, p.211.

인간이란 당초 짐승의 일종. 맹수와 싸움이란, 죽음을 건, 승인욕망이 아닐 수 없는 것. 주인이 된 <나>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지난날의 인류가 했던 수렵세계에의 향수 어린 재현이 아닐 수 없지요. 인간의 존엄과 동물에의 경시풍조란 예측적인 농경사회나 기술자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생각일 뿐.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짐승을 놓고 그와 싸우는 일이란 신성한 것. 죽은 짐승에 대한 죄의식 따위란 없고, 대등한 자로서 경의의 대상일 뿐, 투우의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³³⁾

김윤식의 주장이 아니라도 ‘그’는 인간이란 근본이 짐승의 일종임을 깨닫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그’는 비록 대결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잉어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것은 신성한 일이며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잉어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오영수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는 잉어와의 대결이 팽팽하게 긴장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녀석의 생명까지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녀석의 생명도 존귀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잉어를 한낱 물고기로서만 인정했다면 이처럼 진지하게 대하거나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강의 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잉어를 영물 혹은 고귀한 생명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함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을 환기시킨다. 인간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곧 인간이라는 것이다. 끝없는 도전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역설한다. ‘그’가 끝까지 잉어와 대결하려는 의지를 통해 이점을 암시한다.

오영수는 생명의 고귀함과 함께 덤으로 1970년대의 산업화 그늘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낙오자들에게 새 삶에 도전하기를 촉구하는

33) 김윤식, 「헤겔의 시선과 베이트슨의 시선 -<미늘>과 <미늘읽기의 끝>에 부쳐-」, 『미늘의 끝』(안정효, 들녘, 2001, pp.183-197.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하겠다.

V. 결론

오영수는 어려서부터 말년까지 낚시를 즐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낚시와 관련된 소설을 13편 발표한다. 자신의 경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우선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독자는 주인공이 작가와 동일인이라는 착각 속에 작품을 읽게 된다. 그로 인해 작가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게 독자에게 다가간다.

소설은 어디까지나 허구이니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다. 경험만으로 창작하려 하면 소재주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³⁴⁾ 창작에서 소재주의에 빠지는 경우란 작가가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골몰할 때다. 또 재료를 중시한 나머지 주제를 소홀히 할 때다. 오영수처럼 노련한 작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는 낚시 경험을 적절하게 꾸미고 변형시켜 새로운 구조로 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이를 망각한 채 오영수가 낚시광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앞세워 이들 소설을 신변잡기적이고 사소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나마 최옥선이 본격적·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⁵⁾ 그러나 그 결과가 작품의 심층적 분석이 되지 못하고 개략적 고찰에 그친 점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소설들 중에는 물론 자신의 경험담을 가볍게 소개하거나, 수

34) 조정래, 『소설창작, 나와 세계가 만나는 길』, 한국문화사, 2000, p.66.

35) 최옥선, 「오영수의 낚시 소재 소설 고찰」, 『국제언어문학』, 2007. 12, pp. 67-98.

필과 구별하기 어려운 작품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통적 소설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작가 또한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설화와 함께 꿈이 자주 삽입되는 것도 그 노력중의 하나다. <수련> <장자늬> <실겉이꽃> <뚝섬할머니> <삼호강>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꿈은 서사적 흥미와 함께 작품의 의미 확대에 기능한다. 의식적으로 알파벳 이니셜이나 ‘그’·노인·촌로·신사·할머니 등 삼인칭 명명을 사용하여, 신변소설이나 사소설이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과 차별화도 꾀한다.

이들 작품은 대체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본분이나 도리를 강조하는 교훈으로 되어 있거나, 현세대에 만연하고 있는 부도덕과 무질서와 비리를 고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허위 의식을 버리고 인격도야를 주문하는가 하면, 법도와 규율을 준수하라고 역설한다. 우주의 섭리 앞에 겸허해야 함을 경고하는가 하면, 사람이 지켜야할 덕목을 제시한다. 또한 예의범절이나 체면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꾸짖고, 약자나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몰인정을 질책한다. 권력에 아첨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병폐를 폭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자연친화와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과 동일시하여 이들이 서로 감정과 사고가 통한다고 보는 데서 입증된다. 이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귀중하다는 작가의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어느 작품에 한정시켜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인생교화를 역설하다 보면 현실고발이 될 수 있고, 자연친화를 강조하다 보면 생명존중이 뒤따를 수 있다. 그 반대도 성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서로 넘나들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따름

이다.

이제 사람들은 낚시를 일종의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오영수는 정신 수양 혹은 심신수련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작품화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들은 여타의 소설들과 차별화 된다. 이로써 오영수는 한국문단에서 낚시관련 소설을 창작한 특이한 작가가 된다. 이것은 안정효의 낚시 체험 소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오영수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전 작품을 한꺼번에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우선 주제별·경향별·시기별·체재별·인물별·기타 등 세분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총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가 이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1. 논문

- 곽근, 「오영수 소설의 동물의식 고찰」, 『한국현대문학의 어제와 오늘』, 국학자료원, 1998, pp.107-126.
- 권영민, 「오영수 소설의 새로운 계보학을 위해」, 『자유문학』, 2006 가을호, 자유문학사, pp.225-230.
- 김영화·김병택, 「오영수의 소설 연구」, 『제주대 논문집』, 24집, 1987, pp.28-41.
- 김윤성, 「오영수씨의 일면」, 『현대문학』, 1979. 8, pp.279-280.
- 김윤식, 「헤겔의 시선과 베이트슨의 시선 -<미늘>과 <미늘 읽기의 끝>에 부쳐-」, 안정효, 『미늘의 끝』, 들녘, 2001, pp.183-197.
- 문홍술, 「친화적 자연에서 가혹한 원시적 자연에 이르는 과정 -오영수론-」, 『작가연구』, 10호, 새미, 2000. 12, pp.51-72.

- 박재삼, 「자기세계에 탐닉했던 분」, 『현대문학』, 1979. 8, pp.272-275.
- 신경림, 「반현대의 작가 오영수」, 『한국문학전집』 19권, 삼성당, 1988, pp.504-507.
- 오영수씨와의 대화, 『문학사상』, 1973. 1, pp.305-306.
- 유임하, 「근대성 비판과 자연을 향한 동경 -오영수 소설의 현실성-」, 『작가연구』 10호, 새미, 2000. 12, pp.73-91.
- 이동하, 「단편 소설 미학의 전범」, 『자유문학』, 2006 가을호, pp.241-249.
- 이범선, 「한 점 흰구름처럼」, 『현대문학』, 1979. 8, pp.270-271.
- 이재인, 「21세기를 향한 오영수 소설 연구의 가능성」, 『경기대인문논총』, 2000, pp.4-20.
- _____, 『작가연구』 10호, 새미, 2000. 12, pp.27-50.
- 이정숙, 「오영수 소설의 보편성과 개별성」, 『오영수문학제 발표지』, 2008, pp.42-54.
- 이호중, 「난계 오영수론」, 『울산문학』, 19호, 1990, pp.88-127.
- 천이두, 「오영수 작품론 - 따뜻한 관조의 미학-」, 『동서한국문학전집』 14권, 동서문화사, 1987. pp.512-518.
- 천이두, 「선의 해학의 문학 -오영수론-」, 『작가연구』, 10호, 새미, 2000. 12, pp.7-50.
- 최옥선, 「오영수의 낚시 소재 소설 고찰」, 『국제언어문학』, 2007. 12, pp.67-98.
- 한용환, 「아직도 남은 체온 -오영수를 추억함-」, 『작가연구』, 10호, 새미, 2000. 12, pp.117-127.

2. 단행본

- 안정효, 『미늘의 끝』, 들녘, 2001, pp.399-438.
- 이재인, 『오영수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2000.
- 이창동-안정효 편, 『한국소설문학대계』 86권, 동아출판사, 1995, pp. 531- 546.
- 『울산문학』, 19호, 울산문인협회, 1992년 하반기호, pp.51-163.
- 조정래, 『소설창작, 나와 세계가 만나는 길』, 한국문화사, 2000, pp.

430 韓民族語文學(第53輯)

51-75.

폴 퀴네트, 황정하 옮김, 『인간은 왜 낚시를 하는가?』, 바다출판사,
2006, pp.1-9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h, Young-soo's novels

- focus on his novels about fishing -

Kwak, Keun

Oh, Young-soo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hort-story writers in Korea. His 149 works of medium-length and short stories were published. Among them, there are 13 short stories about fishing.

He used to enjoy fishing in his life from his childhood. Fishing was more than just a hobby to him. Therefore, his experience is well reflected in his novels about fishing.

These novels conveyed two main thoughts.

One of them is conscience. That is, we should be prudent and modest all the time. His novels advised us not to deceive others and to discipline ourselves. They also warned that we should abide by the rules and be humble in front of gods. They criticized lack of courtesy, carelessness of the weak, and flatteries to the authority.

The other idea is people and animals are precious in that they are all living creatures. In his novels, people are identified with animals so both of them can exchange their feelings and thoughts together. As a result, people are obsessed and have a bad dream when they catch fish.

Key words : Oh, Young-soo, An-Jung-hyo, fishing, harmony of nature, hold one's life, complaint of actuality, consciousness of falsehood, build up one's character, manners, power, obsession, nightmare, faithful to one's principles

곽 근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학교)054-770-2117 (핸드폰)011-724-4459

전자우편: kwak0820@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10월 28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